

CJ올리브영, 온·오프라인서 날개 3분기 매출 1.5조… 26% ‘썰충’

〈전년동기대비〉

오프라인 매장, 국내외 방문객 증가
글로벌몰·오늘드림 등 서비스 혁신
‘K-쇼핑 랜드마크’ 입지 강화 방침

국내 유통 강자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쌍두마차’ 전략을 본격화하며 K뷰티의 성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체류 수요가 늘고 글로벌몰 중심의 해외 역직구가 확대되면서 유통 업계 전반의 성장 엔진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18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다졌다.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전체 매출은 1조5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커졌고 이중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세는 모두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출도 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37% 늘면서 오프라인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28%에서 올해 3분기 30%로 확대됐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주요 관광 상권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주효했고 올리브영은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을 추가하는 등 내수 소비 회복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쳤다. 실제로 점포수는 올해 1분기 1379개, 2분기 1393개, 3분기 1394개 등으로 늘었다. 직영점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1148개에서 올해 3분기 1178개로 출점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은 223개에서 216개로 줄었다.



올리브영N 성수 매장 전경. /CJ올리브영

온라인에서는 국내 ‘오늘드림’과 해외 ‘글로벌몰’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오늘드림은 온·오프라인을 연동한 배송 서비스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도심형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몰에서는 현지 맞춤형 마케팅에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K쇼핑’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N 성수’의 경우 대표 K뷰티관광 성지로 꼽힌다. 해당 매장 개점 전후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592%, 내국인 건수는 81% 상승했다. 성수 상권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지난해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70%를 넘어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 자체를 쇼핑은 물론 K뷰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한 성과”라며 “외국인 유입 활성화, K뷰티 소비 확산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리테일 혁신에 속도를 내며 K뷰티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글로벌 역직구 수요는 K뷰티 유통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175개 지역에서 K뷰티를 유통하고 있는 실리콘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810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163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매출 1조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기업 대상 사업이다. K뷰티 브랜드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 ‘스타일코리안’을 운영함과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 늘려 K뷰티 입지를 넓힌다.

실리콘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K뷰티 편집숍 ‘모이다’를 통해 국내 브랜드를 소개해 왔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소재 온타리오 밀스 몰에 북미 지역 1호점 문을 열었고 현재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플로리다에서 새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실리콘투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 1019억원, 미국과 캐나다 726억원, 아시아 528억원, 중동 305억원 순으로 이뤄졌다.

바른손의 K뷰티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졸스’도 해외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졸스가 글로벌 K뷰티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졸스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공개 후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또 다른 역직구 유통사 딜리버드코리아는 기업 전용 B2B 해외 판매 지원 서비스 ‘딜리버드파트너스’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2025 한류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5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유한양행 황학선 ESG2팀장(왼쪽부터),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성호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상준 교수, 류준열 한국전문경영인학회장, 유한양행 조민철 ESG경영실장 등이 ‘제3회 유한 ESG 학술상’ 수상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 ‘유한 ESG 학술상’ 시상

‘온라인 식료 플랫폼과 식품 폐기물’ 대상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함께 ‘제3회 유한 ESG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한 ESG 학술상’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의 학술연구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리나 왕 교수, 서울대학교 살사빌 라아이 샤리안다 연구자, 임재현 교수와 박성호 교수의 ‘온라인 식료 플랫폼과 식품 폐기물: 인도네시아 플랫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 요인

분석’이라는 공동연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지영 연구자와 김상준 교수의 ‘ESG 제도에 따른 인식의 구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담론 비교’ 연구가 선정됐다.

아울러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전달됐다.

이병만 유한양행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연구와 실천을 확산하는 이 자리가 매년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다”며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ESG경영의 학문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뷰티 디바이스 ‘CES 혁신상’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 수상

LG생활건강은 웨어러블 뷰티 디바이스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가 CES 2026 뷰티테크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는 LG생활건강의 독자적인 피부 진단, 생체 모방 패치, 맞춤형 효능 성분 처방, 빛 에너지 제어 등 차세대 기술력을 통합한 기기다. 기기는 먼저 고객의 눈가 주름, 색소 침착, 다크서클 등 노화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6만 명 분의 빅데이터를 구축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부 진단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화장품 유효 성분을 추천하면서 ‘음압 패치’를 눈가에 부착해 유효 성분을 피부 안으로 직접 전달한다. 이와 함께 ‘플렉서블 LED 패치’를 통해 최적화된 빛으로 피부 속 깊은 곳까지 관리할 수 있다.

LG생활건강 강내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하이퍼 리주버네이팅 아이 패치의 CES 2026 수상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솔루션과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 간의 융합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LG생활건강은 스킨 루메티비티(피부 장수)를 위한 미래 뷰티테크 연구 개발로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 근감소증 치료제 본격 개발

카인사이언스와 공동연구개발 계약
노인성·대사질환 포트폴리오 확장

HK이노엔(HK inno.N)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본격 나서며 노인성 질환 및 대사질환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낸다.

HK이노엔은 최근 카인사이언스와 염증 조절 펩타이드 기반 신약 후보물질인 ‘KINE-101’의 근감소증 치료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은 KINE-101의 국내 임상 2상 수행을 주도하고, 카인사이언스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생산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내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신속한 임상 진입과 국내 사업화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KINE-101’은 염증 반응 조절에 핵심적인 단백질인 ‘ERDR1’에서 유래한 펩타이드로, 면역 체계의 균형 유지 및 염증 완화기전을 가진 혁신적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미국 임상 1상을 마쳤으며,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



HK이노엔 곽달원 대표(오른쪽)와 카인사이언스 조대호 대표가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증(CIDP) 치료제로는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을 완료했다. 현재 근감소증 적응증을 위한 비임상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근감소증은 노화나 비만, 대사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전 세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약 9.5%, 여성 약 9.3%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 치료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HK이노엔이 현재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비

만치료제 ‘IN-B0009’와 병용투여를 통한 근육량 감소 개선 시너지도 기대된다. 현재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대부분의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 감소가 동반되는 한계를 갖고 있어, KINE-101은 근육 보존형 치료제로의 차별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 선점은 물론,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카인사이언스와 협력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hy, ‘HP7’ 소화기능 개선 효과 규명

〈기능성 균주〉

사균체 효능 입증… 국제학술지 게재

hy가 자체 개발한 특허 유산균 ‘HP7’의 소화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하며 관련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회사는 이번 결과가 HP7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y는 HP7의 소화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HP7 사균체의 효능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모델에 4주간 HP7 사균체 10억 CFU를 투여한 뒤 의도적으로 소화불량을 유발한 결과, 위 비움 능력(gastric emptying)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장 운동이 회복되며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기능이 안정화했다는 의미다.

더불어 소화 관련 호르몬과 소화 효소 분비가 개선됐고, 위 운동과 연관된 평활근 수축·밀착연접 관련 유전자 발현도 증가했다. 염증 유전자 발현은 감소해 전반적인 위 기능 관리 효능을 확인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